



# 우리의 기술로 세계의 물살을 가르다, 초고속 보트 제작 벤처, 케백



경제안보가 절실한 요즘,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국의 해양자원 보호 또는 구난의 용도로 초고속선박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비례하는 연료비는 고속보트의 보급을 가로막는 기술적 경제적 장벽이었다. 여기 초고속으로 달리면서도 보트의 연료소모 최소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우리 벤처가 있다. 7년의 기술개발과 노력 끝에 탄생한 (주)케백대표 최임철의 초고속 보트는 양립할 수 없게 보였던 '초고속'과 '경제성' 두 가지 강점을 결합시켰다.

케백의 최임철 대표의 전직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해양경찰 경찰에 몸담던 시절 "밀수선, 해적선 등을 추적하며 정말 조금의 속도 차 때문에 놓칠 때마다 좀 더 빠른 배가 있다면" 하고 수없이 생각했던 최 대표는 자연스럽게 빠르면서도 연비효율이 좋은 초고속 보트를 개발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최 대표의 열망과 기술로 탄생한 케백의 초고속보트AM-X의 장점은 단연 빠른 속도와 탁월한 경제성이다. 일반 동급 보트에 비해 속도는 2~4배 빠르면서도 연비는 35%나 좋다. 이처럼 기특한 AM-X의 원리는 바로 운항 중 파도와 마찰저항을 최소화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장착 컨베이어벨트를 장착한 가속장치를 선박 아래에 부착하여 수면의 표면장력에 의하여 선체가 부양된다. 이때 수면 하에 잠긴 선체의 면적을 극소화해 선박의 총 저항을 최소한으로 유지함으로써 종래의 선박에서 고속주행에 소모하는 막대한 엔진 추력을 절감, 작은 에너지를 이용하면서도 통상형 선박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여겨져 온 50Knd, 시속 90Km 이상의 높은 속력을 내는 것이다. 물속을 헤치는 것이 아닌 물위를 달리는 자동차 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첫 번째 배를 만들었을 때의 기분은 마치 내 자식을 낳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일반 고속정과 동시 속도시험결과 월등히 앞서는 결과에

저 자신도 놀랐었습니다." 지금은 기쁨의 소회를 밝히는 그이지만 7년이라는 개발 기간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국내는 초고속 보트 시험장비는 물론 성능시험을 할 표본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독히 추운 겨울을 잘 견딘 난초에 향기가 질다"는 최 대표의 표현처럼 그의 노력과 주변의 지원은 많은 시련을 뛰어넘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선정한 국내 2006년 15대 유망기술의 하나로 꼽히며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됐다.

사실 초고속 보트는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교통수단. 하지만 시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여기문화의 발달로 요트나 수상보트 등의 레저스포츠 인구의 빠른 증가는 물론 유어游魚용 어선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해양사고 시 구조성공률을 높여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도 초고속 보트의 보급과 연결된다. 특히 자국의 바다를 지키는 군사용 목적을 위한 초고속 선박기술은 전 세계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케백은 이러한 수요와 국제적 시장동향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의 저변확대는 물론 세계 진출에 힘쓰고 있다. 세계 최고속 레이싱보트 제작은 물론, 케백의 가속장치는 타 보트에도 장착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판로개척이 가능한 장점을 살릴 계획이다. 미국, 일본, 이태리 등의 유명 조선사와 판매 제휴도 협의 중이다.

최근 세 척의 판매매출을 올린 케백. 올해는 기획 상품을 몇 척 더 만들며 동시에 접근성이 좋은 경남 진해에 공장 부지를 마련 및 배를 정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레저 마리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머뭇거리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는 그의 열정을 동력으로 "안정성, 경제성,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스피드, 어느 면에서나 세계최강의 선박회사를 만들겠다"는 최임철 대표와 케백의 포부가 초고속으로 순항하기를 바래본다.